

영산강·섬진강 '적조' 막는다

환경부 '인' 함유량 낮추기

수질 관리 기본 계획 확정

환경부는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 적조를 일으키는 원인인 인(Phosphorus)의 리터당 함유량을 낮추는 등 수질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2011~2015년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의 2단계 오염총량제에 적용할 목표수질을 각각 종인량(Total Phosphorus) 0.130mg/l과 0.042mg/l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환경부는 오는 2010년까지 실시되는 1단계 오염총량제에서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만 관리 항목에 포함됐었으나, 2단계에서는 '종인량'도 관리 항목으로 추가해 목표수질을 설정했다.

지난 2004년 총인 측정치는 영산강 0.238mg/l, 섬진강 0.068mg/l였다.

총인 관리 기준이 되는 지점은 영산강의 경우 목포시·영암군·무안군의 경계가 되는 하구둑 말단지역으로, 섬진강은 구례·광양에서 경남 하동으로 넘어가는 지점으로 각각 정했다.



영산강 목포 하구인 인근에서 조사원들이 측정장비를 이용해 수질을 검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총인이 목표수질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은연말까지 관할 구역 내 단위 유역에 대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수질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오염총량제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목표 수질을 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지구야 미안해... 앞으론 CO₂ 줄일게"

<이산화탄소>

지구의 날(4월22일)을 맞아 광주지역에서 다양한 지구 지키기 행사가 진행된다.

'2008 지구의 날 광주주진위원회'(이하 주진위)는 20일 오전 10시부터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인근에서 '지구야 미안해! (Earth Free Hug·지구 안아주기)' 행사를 연다.

이 행사는 꿈은광주 21협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등 30여개 시민·환경단체가 참여, 스금남로 차 없는 거리 스기후변화체험전 △자전거대행진 △광주전남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세대에 소중한 유산이 될 녹색 광주, 지속 가능한 지구 보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광주 환경단체 20일 지구의 날 '한마당'

금남로 차없는 거리·자전거 대행진 등

시민 참여 '녹색 광주·지구 살리기' 나서

이에 따라 오는 20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금남로 일대가 차 없는 거리로 통제돼 다양한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지구 온난화 문제를 지적하는 기후변화체험전은 5m 크기의 비닐 안에서 40도 이상의 뜨거운 지구를 느끼는 '5m 지구온난화 체험', '(0)랑 줄이기 애드벌룬 퍼포먼스', 자발전자전거 체험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0) 프리미스 시민 참여대회' 등이 진행된다.

또 지구환경 악화를 가져오는 주범의 하나인 자동차들이 차지하고 있는 금남로를 사람의 길, 자전거의 길로 만들자는 목적으로 남광주역, 중심사역, 소태역 등을 거쳐 10km 구간을 자전거로 이동하는 '지구 살리기 자전거 대행진'도 열린다.

광주전의 오염된 모습을 직접 걷고 자전거를 타면서 보고 느낀 후 대안을 찾는 '광주천아, 미안해!' 행사와 의류수선방, 재활용 체험마당, 중고생활용품 교환 시장 등 '자원순환 재활용 장터'도 이날 금남로 부근에서 진행된다.

또 나무분양, 폐자체체험교실, '수은제로화!! 폐형광등 분리수거', 환경문화체험전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통해 지구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뿐만 아니라 광주전남녹색연합은 오는 21~23일까지 단식을 통해 자원과 지구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지구를 위한 비움의 생활단식' 행사를 연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지구의 날(4월22일)을 맞아 시민들이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진행 중인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자전거 대행진을 벌이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구례 마산·장흥 연지 정수장

수질 관리·운영 등 전국 최우수

전국 최우수 정수장으로 구례군 마산·장흥군 연지 정수장이 선정됐다.

영산강 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해 5~12월까지 전국 정수장 176개소의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장흥과 구례 정수장 등 2개소 등 6개소가 최우수 정수장으로 선정됐다.

환경부에서 실시한 '전국 정수장 운영·관리 실태 조사'는 정수장을 대상으로 3년마다 평가를 진행하며 올해는 527개 중 17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최우수 정수장으로 뽑힌 구례군 마산면 마산정수장은 근무인력, 수질관리, 운영관리, 유지관리, 대국민 서비스 등 5개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영산강 유역환경청 관할 43개소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장흥군 대덕읍 연지정수장은 소규모 정수장으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

자체에서 관리하면서도 원수에서부터 정수까지의 전 관리 체계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최우수 정수장으로 선정됐다.

한편 영산강 유역환경청 관할 정수장 43개소 평가 결과 '우수' 17개소, '양호' 23개소, '보통' 1개소로 평가되며 등 타지역에 비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근무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정수장이 25개소(58%)에 이르고, 근무 인원 상당수가 일용직 등 비전문 인력으로 전문성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 자체에 통보해 조기 개선토록 촉구하고 '정수시설 운영관리자 배치 여부' '위기대응 능력' 등의 항목을 신설해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정부가 자연보호지역 비율을 2012년까지 국토의 15%로 확대하고, 수도 가격 현실화율(수도요금/생산원가)을 2011년 95%까지 올려 수도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 지난 2006년 서울 기준 58㎍/㎥였던 미세먼지 농도를 40㎍/㎥로 끌어내리기로 했으며,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2012년까지 60%로 올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5개년 환경계획인 '제4차 환경보전 종기종합계획(2008~2012년)'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2012년까지 모두 40조

자연보호지역 국토의 15%로 확대

수돗물값 인상, 가격 현실화율 2011년 95% 수준까지

9천11억원을 투입해 환경보전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자연환경복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며 2007년 30만㎡이

더 수변생태벨트의 면적을 48만㎡로,

2007년 68㎢인 하천생태복원 구간을 83㎢로 각각 늘릴 방침이다.

또 상하수도 요금이 낮다고 판단해 상수도는 2005년 82.8%이던 가격 현실화율을 2011년까지 95%로, 2005년 60.2%이던 하수도 가격 현실화율을 2011년 8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2006년 기준 60㎍/㎥로 OECD 국가(평균 36㎍/㎥) 중 최하위 수준인 서울의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2012년까지 40㎍/㎥로 끌어내리는 한편 5대 광역시의 미세먼지 농도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밖에 생활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2005년 56.3%에서 2011년 60%까지 높이고, 생활폐기물의 1인당 1일 발생량을 2005년 0.99kg에서 2011년 0.91kg으로 줄일 방침이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법원 경매 전문

지지경매컨설팅(주)

(법원 경매입찰장 옆)

☎ 062-226-0047 ~ 8

명석한 권리분석, 명쾌한 명도, 명확한 수익성 분석에 의한 재테크 전문상담

▶ 아파트/빌라

대표이사 010-3666-8446 소재지/면적/층짜기(m²) 김경기 최지자

우산동 10평대 13평대 82 1920만원 807만원 월세동 11평대 13평대 985만원 827만원

두원동 대18평대 18평대 1085만원 820만원

금동동 대14평대 15평대 112(34) 194500만원 19300만원

성동동 10평대 12평대 114(25) 8400만원 5580만원

금동동 대14평대 15평대 112(24) 194500만원 19300만원

금동동 대14평대 15평대 112(24) 194500만원 19300만원